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한, 영혼들은 휴식을 100% 취할 수 없다. 연기할 배역이 없는 니르바나의 나라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한다.
- 질문:** 공부하는 것에 싫증이 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죄 많은 생각들이 되느냐?
- 대답:** 그들은 아버지를 떠날 생각, 즉 아버지와 헤어지려는 생각을 가진다. 바바가 말한다: 이런 생각은 죄 많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죄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싫증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 자녀들은 자기의 소득을 망친다. 어떤 상황 때문에도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 빠친다면, 너희는 21생의 주권을 잃는다.
- 노래:** 오늘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네.

옴 산티. 이것은 신봉의 길의 노래이며 기도이다.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신에게 하는데, 그러나 극심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모른다. 그러니 누가 그들의 말을 들겠느냐? 신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면, 오직 그때에만 그가 와서 그들의 빛을 점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신을 모르고, 그러니 그가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직접 그의 앞에 앉아 있다. 신은 극심한 어둠에서 너희를 꺼내어 지극히 밝은 빛 속으로 데려가고 있다. 브라마의 밤과 브라마의 낮이 기억된다. 밤에 그들은 이 문간, 저 문간으로 많이 배회한다. 그들은 산, 종교적인 장소들, 사원들, 모스크(회교 사원) 등에 가지만, 어느 누가 어디에서 신을 찾겠느냐? 바라트에서 사람들은 신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들은 쉬바의 밤에 대해서 얘기한다. 바라트에는 정말로 그의 기념물인 형상들이 있지만, 그가 언제 오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완전한 어둠 속에 있지 않다. 너희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등수대로 계속 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가 이 세계 전체를 창조하고, 어떻게 창조하는지, 너희 자녀들은 안다. 신이 너희를 가르쳐서 인간에서 신인으로 만들고 있는 여기, 이 세계 영성 대학교에 너희가 왔다. 너희들 중에서도 역시 등수대로 이 지식을 이해한다. 일부는 아주 잘 이해하는 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도망간다. 그들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 빠친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탄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 빠치기 시작했던 자들이라는 것이 기억된다. 그들은 이 지식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시무룩해지는 자들이 된다.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서 너희가 21생 동안 천국의 주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그를 잊는다. 바바가 이미 설명해주었듯이, 너희가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평화의 나라, 니르바나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해방의 나라라고도 불린다. 자기들이 100%로 완전히 쉬고 있다고 일부의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하루 종일 그들은 틀림없이 이런 유형, 또는 저런 유형의 행위를 행한다. 물론 그들은 밤에 자는 것을 일시적인 휴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혼은 “하루종일 일했더니 피로해서 나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자신을 (몸에서) 떼어낸다. 아버지가 평화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그곳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행해야 할 역할이 없을 때, 신은 휴식한다. 해방의 나라에서는 어떤 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들의 지각을 잠근 자물쇠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다. 아버지가 묻는다: 내가 언제 쉬는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 자녀들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그것은 휴식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역할이 하나도 없을 때, 너희는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천국에 있을 때, 나는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곳(집)에 평화로이 머문다. 그곳에서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이 휴식이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쉬고 있을 수가 없다.

영혼이 말한다: 밤에 잘 때 나는 쉰다. 그때에는 내가 쉬고 있든, 평화로이 머물러 있든, 같은 것이다. 밤에는 너희가 몸 없이 된다. 너희들은 평화로워진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너희는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불안(쉬지 못함)’을 느낀다. 행위를 행할 때, 너희는 “불안(제대로 쉬 수 없음)”을 경험한다. 황금시대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을 침착하지 못하게(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마야이다. 그곳에서는 너희가 쉬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맡은 일을 다 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다. “휴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저는 좀 쉬려고 심라에 갈 겁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휴식은 우리가 니르바나의 나라에 있을 때 가능하다. 거기에서 우리는 고요하게 머문다. 사실, 휴식은 없다. 어떤 이가 100% 쉬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다. 그것은 무지라고 불린다. 물론, 틀림없이 “만일 어떤 이가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쉰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공부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너희가 실증했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기 자신의 소득을 망친다. “오 밤의 여행자여,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마세요, 부루통해지지 마세요”라고 일컬어진다.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과 헤어지려는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게 해야 한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죄 많은 생각이다. 너희들이 천국의 왕국을 받는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느냐? 가끔 이런 편지를 쓰는 자들이 있다: 저는 때때로 이 공부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나 지금은 이해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해한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지식의 대양인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높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바라트 사람들은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 그리고 락쉬미와 나라얀을 알지만, 언제 락쉬미와 나라얀이 그들의 왕국을 차지했는지, 누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는지는 모른다. 마야가 모든 이를 극도의 어둠 속에 가두었다. 창조자 아버지가 어떻게 인간 세계를 창조하는지, 아버지가 와서 설명한다. 아무도 이것을 전혀 모른다. 아버지 한 분만이 여기 앉아서 설명한다. 프라자피타 브라마는 창조자라고 불릴 수 없다. 그가 비록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는 창조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라가 그들을 창조했다고 얘기한다. 오직 무체인 아버지만이 창조자라고 불릴 것이다. 오직 인간들만이 창조자인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동물들은 그를 알 수 없다. 동물들은 지고의 영혼이 자기들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인간들은 신이 자기들을 창조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설명한다: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라. 제일 먼저,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들이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저 무한한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피조물들을 창조하는지 보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한다: 오 영혼아, 너는 나에게 속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창조한다. 너희들은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들이다. 무지의 길에서는 “제가 어땀하든, 제가 무엇이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한다. 아버지도 역시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브라마의 자녀들이 된다. 너희들은 이제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육신의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는 신인 가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신의 이런 창조를 아버지가 어떻게 이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가 설명하고 이 브라마도 말한다: 나도 역시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이 된다.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도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들은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입으로 태어난 피조물들이며, 쉬브 바바는 너희가 그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에게 반드시 하나의 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느냐? 쉬브 바바는 그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몸을 빌린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한다: 너는 나에게 속한다. 이것을 입으로 태어나는 창조라고 부른다. 쉬브 바바가 이 입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말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이런 내용들은 경전들 등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때에는 극심한 어둠이 있다. 아버지가 오면서 빛을 가져오고, 그런 이유로 브라마의 밤과 브라마의 낮이 기억된다. 최소한 뭔가 존재한다. ”거짓이 있을 때는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진실은 흔적도 없다네”라고 노래로 불린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한다: 한두 가지는 남는다, 전멸은 없다. 소수가 남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거대한 전멸을 묘사해왔다. 그러나 거대한 전멸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다에서 아이가 인도보리수 나뭇잎 위에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이미 설명했다: 자궁의 궁전에서 올 때, 너희는 희열을 느끼며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곳에는 슬픔이나 죄 많은 행위가 없다. 그것은 자비로운 영혼들의 세계인 반면, 이것은 죄 많은 영혼들의 세상이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히 자비로운 영혼들이 된다. 반 사이클 동안은 아무도 너희를 죄 많은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너희는 무척 많은 자선을 행한다. 너희들은 불멸하는, 자비로운 영혼들이 된다. 그 다음에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죄 많은 영혼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거듭 되풀이해서 자선을 행하고 기부를 한다. 바라트는 완전히 정의롭다고 불린다. 그들이 기부를 하고 자선을 행하는 것은 바라트에서이다. 우리가 이 세계를 떠날 것이며, 여기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들은 이 세계의 물질들을 새로운 세계로 옮기고 있다. 사람들은 신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 즉 그것을 자기들의 다음 생으로 옮긴다. 여기에서 너희는 21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옮긴다. 따라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는 너희에게서 모든 쓰레기를 받고, 너희에게는 새 것들을 모두 준다. 그는 너희에게서 낡은 것을 전부 받고, 너희에게 금으로 된 것들을 준다. 너희들은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주며, 그러면 아버지도 역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너희의 배역들은 드라마에 정해진 것이다. 모든 이가 가정을 버렸다. 달리 어떻게 외양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용광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들은 용광로 안에 새끼고양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이때에 이 지식을 전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이 지식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21생 동안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추락할 것이라는 지식을 그곳에서는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트리칼다르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이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주요 배역을 맡는 것은 오직 너희뿐이다. 다른 누구도 이 배역을 갖지 못한다. 오직 너희 바라트 사람들만이 악마에서 신인으로, 그리고 신인에서 악마로 변한다. 나머지들은 모두 그 종간의 부차적인 것들이다. 연극에서는 중간에 재미난 배역들이 있다. 반 사이클 후에 신인 종교는 사라진다. 이 전체 사이클이 너희의 지각 안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너희는 설명할 수 있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지고의 지역에 있는 신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모든 지식을 내 안에 갖고 있다. 나는 인간 세계 나무의 살아있는 씨앗이다. 저것들은 살아있지 않은 씨앗들인 반면, 쉬바는 살아있는 씨앗이다. 그의 형상이 숭배된다. 오늘날에는 정부에서 나무의 묘목들을 심는다. 이분은 살아있는 씨앗이다. 그는 인간 세계 나무의 씨앗이라고 불린다. 나는 이 전체 나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만일 어떤 이가 100%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면, 너희는 100%의 휴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한다. 물론 천국에는 100%의 순수성, 행복,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름 자체가 천국이다. 아버지는 사트 슈리 아칼이라고 불린다. 그는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그에게는 결코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는 모든 죽음들 중의 죽음이라고 불린다. 아버지가 말한다: 이것은 더러운 세계이다. 이 건초더미는 반드시 불타버려야 한다. 이 마하바라트 전쟁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희생의 불을 피운다, 즉 그들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건초더미에 불이 붙어서 너희가 낙원의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너희는 손뼉을 친다. 멸망의 불꽃이 이 루드라의 지식의 희생의 불에서 나왔다. 아버지에게 속하는 이들은 천국의 주인들이 될 것이다. 나머지들은 모두 각자 카르마의 잔고들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해방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의 역할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황금시대의 그 신인들 모두가 어디에서 왔느냐? “신이

인간들을 신인들로 변화시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고 일컬어진다. 그는 너희를 빈 조개껍데기에서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변화시킨다. 누가 지식을 어느 정도로 훈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 정도만큼의 지위를 차지한다.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 너희들이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너희 자신을 위해서 천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만일 어떤 이가 슈리마트에 시무룩해져서 자기 마음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것은 라반의 지시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매 발걸음마다 계속 슈리마트를 따라야 한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한, 아버지는 너희를 관리인으로 만든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완전한 기부자가 되어라. 정직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그것을 새로운 세계로 옮겨라.
2. 너희들이 살아 있는 한, 관리인이 되어라.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에게서 슈리마트를 받아라. 슈리마트에 시무룩해져서 너희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일은 결코 없게 해라.

축복: 너희의 몸을 영혼의 사원이라 여김으로써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1등으로 높은 브라민 영혼이 되어라.
브라민 영혼인 너희들은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서 1등으로 높은 영혼들이고, 너희는 다이아몬드만큼 귀중하다. 이를 너희 의식 속에 간직한 채 너희의 몸을 영혼의 사원이라 여기고 깨끗하게 유지해라. 어떤 신상이 고귀할 경우, 그것을 모신 사원도 역시 그만큼 고귀하다. 너희들은 몸을 사원의 형태로 위탁받은 관리인이고, 관리인으로서의 이 입장은 자연스럽게 청결함과 순수성을 가져온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너희들 몸의 순수성은 늘 영적인 향기의 경험을 준다.

솔로건: 영성을 유지하겠다는 맹세를 지키는 것이 깨달은 영혼이 되는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